

한라포커스 'CFI 2030'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 (하) 태양광

설비 확충 더딘 데다 수익성은 낮아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목표치 30%에도 못미쳐 전기농사 수익 '뚝'... 폐 패널 처리문제도 대두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목표치를 1411MW로 설정했다.

주택 태양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MW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제성과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업 규모 및 기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베란다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 베란단에 300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2025년까지 목표는 총 21MW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24MW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126MW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감골 폐원지 및 유휴부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도 계획에 포함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현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목표대비 30%에도 못미치는 1329개소·413.8MW에 그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늘어날 수록 제주 자연경관 훼손 문제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 중 공동주택 베란다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제주지역 강풍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특히 감골 폐원지 및 유휴부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농민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예상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감골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

젝트를 추진하면서 5000여평·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게 될 것이라며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감골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고 농가에 토지형질변경부담금을 전가해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 감골폐원지 태양광 농사 농민은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해서 과수원을 임대해 주었는데 현재 절반 정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하우스 감귤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태양광 사업자는 "1000kW와 300kW짜리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부담금만 1억 3000만원 정도 나왔다"며 "농지전용

비에 취득세까지 내야 해 이 사업에 시작했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수록 태양광 폐 패널(모듈) 처리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이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리콘과 은의 경우 분리공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지만 유리를 처리하는 방법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확보와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 모듈은 제주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들이 모두 수거를 하고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태양광재활용센터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파도에 떠밀려온 파래 16일 김녕해수욕장에서 구좌읍사무소 관계자들이 파도에 떠밀려온 파래를 수거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 원도심 탐방 '심콩투어' 호응

지난 4월 개설... 이달 14일 기준 1700여명 참가 제주역사 중심무대 탐방객에 확인 스탬프·경품

탐방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역사의 중심무대인 제주시 원도심을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가 호응

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공동화 현상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해 지난 4월부터 스탬프 투어(일명 원도심 심콩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원도심 내 문화·관광자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콩투어를 추진한 결과 이달 14일 기준 참가자가 1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주제 세미나

18일 오후 2시 서귀포예술의전당... 3인 주제발표 120년 제주 근현대 예술의 역사 시대별 조명 주목

서귀포시가 현재 운영 중인 '섬을 사랑한 예술가들' 공동기획전과 연계, 오는 18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주와 인연한 도내의 예술가와 시대별 제주예술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바다를 건넌 예술가'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에 근대적 예술이 태동하기 시작한 1900년대부터 2021년 동시대까지 시대별 제주예술의 흐름 속에서 제주에 들어와 활동했던 예술가와 제주 출신으로 타지역으로 나가 활동한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담아낸다.

전은자 이종섭미술관 학예연구사, 이경은 미술기획자, 양은희 스페이스 D 디렉터 등 3명이 시대별 주제발표

를 이어간다. 전은자 학예연구사는 '제주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1900~1950년대)'을 주제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제주예술에 영향을 끼친 입도작가와 피난작가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경은 미술기획자는 '제주미술의 지형(1960년~2000년)'의 주제로 제주 현대미술 태동기에 입도하거나 활동한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양은희 스페이스D 디렉터는 '바다를 건넌 작가들(2000~2021)'을 주제로 시각예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주를 오가며 활동하는 현재의 작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서귀포시, 30일까지 접수

서귀포시가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2021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다. 이 가운데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자가'와 '임차' 구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LH(공공임대 등) 및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귀탁기자

알림

2021 JDC와 함께
생각을 중추게 하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1년 10월 18일(월)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립 (가시활동: 2021년 1월1일차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단체	▶대상 1팀(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최우수 9팀(각 15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우수 8팀(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로 구분 응모 단, 일반부로는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학급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효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The number of granular water soluble fertilizer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